

총회 회장 인사말



“수산(水産)의 의미 재정립하여
어촌·어항 발전 이룰 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주성호 수산정책국장님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수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2005년 12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발족한 후 1년여 동안 수산전문 공공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희 협회는 어촌·어항 발전의 근간이 될 “어촌·어항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촌 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 업무도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해양정화선” 및 “어항정소선” 운영과 함께, 생산의 장(場)인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관광 분야에서도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촌 관광 진흥을 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인들에게는 어촌·어항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수산(水産)’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수산업은 무한할 것 같은 “해양 생물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만 전념하던 1차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산’이란 “물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저에서 표층까지, 또 생물자원에서 물류, 광물, 에너지, 문화자원까지 물, 즉 수계(水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 어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안역 개발의 기초가 될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어장의 정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립한 “어촌문화관광센터”를 활성화하여, 어업인의 어촌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지역 “문화 발굴 및 창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굳게 맹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으면서, 저희 협회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 2. 22.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 평 암